

서울 세계여기자 포럼

한국 미국등 6개국의 현직 여성언론인들과 관계학자 2백여명이 참가하는 제1회 서울세계여기자포럼이 2, 3일 이틀동안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한국여기자클럽(회장 尹浩美)과 프레스센터(이사장 李相河)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의 대주제는 「언론과 여성」.

언론에서 다루지는 여성의 문제를 여성언론인의 시각으로 검토해보자는 의미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아시아의 여성과 언론보도」를 비롯, 「미디어수용자로서의 여성」 「언론에서의 남녀 성문제」등 3가지 소주제별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중 「경제발전과 여성언론인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아시아의 여성과 미디어

상황에 대해서 발표하는 마쓰이 야요리(松井耶依·아사하신문 편집위원)는 미리 제출한 발표문에서 「일본내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일본남성들이 기생관광등으로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 여성들까지 괴롭히는 결과를 낳았다」며

「여성언론인들은 항상 여성 문제를 의식하며 취재활동을 해야하고 초국경적인 관점을 갖고 판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언론에서 여성을 취급하는 관행을 검토해 「언론에서의 남녀 성문제」의 주제발표를 하는 미국 세인트폴 파시오너지의 편집국장 민디 커넨은 「같은 일을 하는 남녀를 보도할 때 남자에게는 「강력하다」는 표현을 쓴다면 여자에게는 「강압적이다」는 표현을 쓰고 남자에게는 「지도적」이라는 수사를 붙여주

는 데 반해 여자의 경우는 「통제자」라는 꼬리표를 달아 준다」는 등의 예를 들어가며 언론보도에서의 성차별적인 현실을 지적했다.

이번 포럼에 참가하는 8명의 외국여성언론인들은 폴 리처상 수상자인 민디 커넨을 비롯해 리싱(중국 차이나 데일리 특집부장) 레지나 히메네즈 데이비드(필리핀데일리 인콰이어러지 칼럼니스트) 니티난드 요르생가트(태국 더 네이션지 특집부장)등 모두 해당국의 중진급 언론인들이다.

94. 3. 2

“여성관련 보도 「성차별」 많다”

무능력등 암시 부정적표현 관행